## **Semantics**

2018009125 조성우

## 1. 컴파일 환경

VM에서 Ubuntu 18.04.6 LTS버전으로 동봉된 Makefile을 통해 컴파일을 하였습니다.

## 2. 코드구현

먼저 insertNode함수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

```
// Variable Declaration
case VariableDecl:
{

// Semantic Error: Void-Type Variables
if (t->type == Void || t->type == VoidArray) VoidTypeVariableError(t->name, t->lineno);
// Semantic Error: Redefined Variables
SymbolRec *symbol = lookupSymbolInCurrentScope(currentScope, t->name);
if (symbol != NULL) RedefinitionError(t->name, t->lineno, symbol);
// Insert New Variable Symbol Table
insertSymbol(currentScope, t->name, t->type, VariableSym, t->lineno, t);
// Break
break;

// Function Declaration
case FunctionDecl:
{
// Error Check: currentScope is not global
ERROR_CHECK(currentScope == globalScope);
// Semantic Error: Redefined Variables
SymbolRec *symbol = lookupSymbolInCurrentScope(globalScope, t->name);
if (symbol != NULL) RedefinitionError(t->name, t->lineno, symbol);
// Insert New Function Symbol to Symbol Table
insertSymbol(currentScope, t->name, t->type, FunctionSym, t->lineno, t);
// Change CurrentScope
currentScope = t->scope = insertScope(t->name, currentScope, t);
// Break
break;
}
```

VariableDecl과 FunctionDecl입니다. 둘 다 lookupSymbolInCurrentScope라는 함수를 각각 currentScope(var)와 globalScope(Func)에서 중복되는 symbol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중복되는 symbol이 존재한다면 Error를 발생시켰습니다. 중복되는 symbol이 없다면 둘 다 insertSymbol을 통해 symbol table에 추가해주었습니다. 참고로 FunctionDecl쪽 insertSymbol에서 currentScope를 넣었는데 이 때 어차피 currentScope == globalScope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FunctionDecl에서는 추가로 Function scope까지 insertScope를 통해 생성해주었습니다.

```
case Params:
{

// Void Parameters: Do Nothing
if (t->flag == TRUE) break;

// Semantic Error: Void-Type Parameters
if (t->type == Void || t->type == VoidArray) VoidTypeVariableError(t->name, t->lineno);

// Semantic Error: Redefined Variables

// Semantic Error: Redefined Variables

SymbolRec *symbol = lookupSymbolInCurrentScope(currentScope, t->name);
if (symbol != NULL) RedefinitionError(t->name, t->lineno, symbol);

// Insert New Variable Symbol to Symbol Table

insertSymbol(currentScope, t->name, t->type, VariableSym, t->lineno, t);
// Break
break;
}
```

다음은 Params입니다. 먼저 t->flag를 통해 VOID인지 확인하였습니다. 그 다음엔 VOID, VOIDArray타입인지 확인하여 Error를 발생시켰습니다. 그 다음은 마찬가지로 중복 symbol이 있는 지 확인하였고 없으면 insertSymbol을 통해 현재 scope에 새로운 symbol을 추가하였습니다.

```
case CallExpr:
{

// Semantic Error: Undeclared Functions
SymbolRec *func = lookupSymbolWithKind(globalScope, t->name, FunctionSym);
if (func == NULL) func = UndeclaredFunctionError(globalScope, t);
// Update Symbol Table Entry
else

appendSymbol(globalScope, t->name, t->lineno);
// Break
break;
}
// Variable Access
case VarAccessExpr:
{

// Semantic Error: Undeclared Variables
SymbolRec *var = lookupSymbolWithKind(currentScope, t->name, VariableSym);
if(var == NULL) var = UndeclaredVariableError(currentScope, t);
// Update Symbol Table Entry

else{
    appendSymbol(currentScope, t->name, t->lineno);
}
// Break
break;

// Break
break;
```

그 다음은 CallExpr과 VarAccessExpr입니다. 둘의 형식은 거의 똑같고 appendSymbol을 통해 어디서 참조되었는지 추가만 해주었습니다.

```
case IfStmt:
case WhileStmt:

{

// Error Check
ERROR_CHECK(t->child[0] != NULL);

// Semantic Error: Invalid Condition in If/If-Else, While Statement

TreeNode* conditionNode = t->child[0];

//checkNode(conditionNode);

if(conditionNode->type != Integer){
    InvalidConditionError(t->lineno);

}

// Break
break;

}
```

다음은 CheckNode입니다. 319줄에서처럼 처음에는 child의 typecheck가 안되었다고 생각하였었는데 알고 보니 traverse함수에서 DFS형식으로 childNode를 checkNode함수에 넣어 typecheck를 끝마친 상황이었습니다. 따라서 굳이 한 번 더 호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석 처리하게 되었습니다. 320줄에서 child[0]즉 expr부분이 integer가 아니면 오류가 나게끔 처리하였습니다.

다음은 ReturnStmt입니다. t->flag가 1이라는 것은 empty return을 뜻하므로 함수의 return type이 void가 아닐 경우 error처리를 하였습니다. 그리고 empty return이 아닐 경우 child[0]의 type과 함수의 return type이 같은 지 확인후 다르다면 error를 띄웠습니다.

다음은 AssignExpr과 BinOpExpr입니다. 둘 다 child[0]과 child[1]의 type이 integer가 아니라면 에러를 띄웠고 t->kind에 따라 에러메시지를 다르게 설정하였습니다. 만약 둘 다 integer로 구성돼 있다면 정상적이므로 t->type을 t->child[0]->type, 즉 사실상 integer로 설정하였습니다.

```
case CallExpr:
   SymbolRec *calleeSymbol = lookupSymbolWithKind(globalScope, t->name, FunctionSym)
   ERROR_CHECK(calleeSymbol != NULL);
    // Semantic Error: Call Undeclared Function - Already Caused
   if (calleeSymbol->state == STATE_UNDECLARED)
       t->type = calleeSymbol->type;
       break;
   TreeNode *paramNode = calleeSymbol->node->child[0];
   TreeNode *argNode = t->child[0];
   while(paramNode != NULL || argNode != NULL){
        if(paramNode == NULL && argNode != NULL){
           InvalidFunctionCallError(t->name, t->lineno);
       else if(paramNode != NULL && argNode == NULL){
           if(paramNode->flag == 1) break;
                InvalidFunctionCallError(t->name, t->lineno);
        //checkNode(argNode);
```

다음은 CallExpr입니다. 368줄에서 table lookup을 통해 알맞은 symbol을 가져옵니다. 여러 error처리를 거친 후 380줄입니다. 여기서부터 함수 인자들을 비교합니다. 둘 중에 하나라도 null이 아닐경우 계속 while문을 진행합니다. 381줄에서 선언된 인자 수보다 더 많은 인자를 넣어 call을 진행한 경우의 error를 띄웁니다. 386줄에서는 예를 들어 int a(VOID)로 선언되었고 a(); 로 호출한 경우올바른 상황이므로 break를 해주었습니다.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닌 상황은 call했을 때 인자가 필요한 것보다 부족한 경우이므로 error를 띄웠습니다. 395줄에서는 둘 다 NULL이 아니지만 type이다른 경우와 함수 선언당시 VOID로 인자를 선언하였는데 다른 인자가 들어온 경우의 error를 처리하였습니다.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진행이므로 각자 sibling을 통해 다음 인자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둘 다 NULL이 되어 while문을 나왔다면 t->type을 함수의 return type으로 선언하였습니다.

다음은 마지막으로 varAccessExpr입니다. 다른case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error처리를 거친 후 426 줄부터 보겠습니다. 426줄에서부터는 array인 상황을 처리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. 먼저 431줄에서 IntegerArray가 아닌 경우 error를 처리하였고 435줄에서 index가 integer가 아닌 경우를 처리하였습니다. 정상 진행될 경우 t->type을 Integer로 설정하였습니다. 444줄에서는 array가 아니라일반 변수인 상황을 처리하였습니다.

## 3. test결과

pdf에서 설명하신대로 ./testcase\_result.sh을 실행하여 모든 result들을 비교하였습니다. 다행히 myresult와 예시로 나온 result의 모든 결과가 동일하였습니다. 과제 편의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한학기동안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